

# 추석 벌초 동력예초기 사용하기 전 점검부터

## 농진청, 예초기 사용 중 안전사고 예방법 소개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추석을 앞두고 동력예초기 사용이 빈번해짐에 따라 안전한 사용법과 올바른 점검 방법을 알리고,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예초기 사고는 빠르게 회전하는 칼날이 돌 등에 부딪힐 때 많이 발생한다. 예초기 사고 원인으로는 작업자 부주의(50%)가 가장 많았고, 운전 미숙과 안전장비 미착용(25%) 등 사용자가 원인을 제공한 사고 비율이 높았다.

예초기 사용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용 전 기계점검, 보호장구 착용, 올바른 사용법 등을 미리 익혀두어야 한다.

우선 예초기 각 부분의 볼트·너트가 풀린 곳은 없는지 이상여부를 살펴야 한다. 연료통을 확인해 연료가 새는지 확인하고, 연료가 부족할 경우 보충한다. 특히 엔진속도조절 와이어와 전기선이 플렉시블 케이블에 휘감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예초기 사용 전에는 반드시 안전모와 보호안경, 무릎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안전커버를 장착하고 안전 날을 사용해야 한다. 작업할 장소 주변에 빈 병이나 돌 같은 위험 요인이 있는지 살펴 정리하고, 보조 작업자와 작업 내용에 대해 사전 협의해야 한다.

또한 기계를 조작할 때에는 반드시 두 손으로 잡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작업한다. 사용 중 기계가 흔들리거나 소음이 발생할 경우 시동을 끄고 칼날 상태 및 동력전달장치를 점검한다. 작업 중 풀이 칼날에 감긴 경우에는 반드시 시동을 끈 뒤 풀을 제거한다.

예초기를 사용한 후 관리에도 신경써야 한다. 연료탱크와 기화기에 연료가 남은 채로 보관하면 시동불량의 원인이 되므로 가끔씩이면 연료를 뺀 후 보관해야 한다.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최상호 센터장은 "예초기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이상이 없는지 미리 점검한 뒤 올바른 사용법을 충분히 익히고, 개인 보호장구를 착용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생산농가·소비자 일상을 카메라로

### 전북농협, 로컬푸드 브이로그 챌린지 영상 공모전 진행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내 행복주택 조감도.

## 정읍과학산단 내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

### LH전북본부, 시세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 산단 근로자·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대상 모집

LH전북지역본부(본부장 권창호)는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내 행복주택 403호에 대해 입주자격을 완화해 추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LH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며, 입주자 유형에 따라 6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정읍첨단A1-3BL행복주택은 정읍시 신정동 일원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내 지어진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이다.

이러한 젊은 계층과 노인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 입주자 모집은 산업단지 내 근로자, 대학생,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한부모, 고령자 계층에게 공급된다. 입주자격 완화로 인해 소득 및 자산기준의 150% 이하인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추가 공급은 지난 1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진행되며, 고객이 직접 동호회 후 계약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방문접수로만 가능하다.

정읍첨단 행복주택의 청약절차와 모집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 공고문(LH청약센터)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 혹은 LH전북본부 상담콜센터(063-230-6471, 6472, 6473)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 국민연금, 비대면 화상감사 기법 도입으로 '업무 혁신'

국민연금공단(상임감사 이춘구)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종로중구지사 등 8개 지사에 대해 비대면 화상감사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단은 수도권외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비대면 화상감사 기법을 도입해 감사업무 혁신에 나서고 있다.

이번에 도입한 화상감사 기법은 감사자료 요구 및 제출은 e-감사시스템을 통해 송·수신하고 면담 및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언 등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방법이다.

이춘구 상임감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직원 보호를 위해 발빠르게 비대면 감사기법을 전면 도입했다"며 "이번 감사활동에 대한 성과 분석 등을 통해 비대면 감사기법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IT 비대면 감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 난치성 폐질환 치료제 개발 새 지평 열다

전북대학교병원 이용철 교수 연구팀의 중증 폐질환에 대한 연구 과제 결과가 최근 시행된 한국연구재단의 '2020 연구과제 심사'에서 최우수 등급의 과학적 성과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용철 교수 김소리 교수 정재석 교수

## 전북대병원 이용철·김소리·정재석 교수 국가연구과제 중 '최우수' 등급 선정돼 6년동안 연구... 세포 소기관 복합체 역할 규명

연구팀은 본 연구과제를 통해 스테로이드 저항성 중증 폐질환의 발병에 세포소기관 스트레스 및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이상이 중요하게 기여함을 세계 최초로 밝혔고, 이 결과를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호흡기학 저널인 영국흉부학회(British Thoracic Society)의 'Thorax'지에 표지논문을 포함해 2016년과 2018년에 두 차례 게재했다.

현재로서는 중증 천식을 포함한 난치성 폐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제가 전무한 상황이나, 연구팀은 세포 소기관 기반의 접근이 향후 치료제 개발의 핵심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해 이 분야 발전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학계의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연구팀은 국내 유수의 제약 회사와의 병행연구를 통해 국내 최

성 폐질환 분야의 심화 연구를 지속하고 있으며 폐질환의 신개념 치료제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한편, 이용철 교수 연구팀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보건복지부 지정 보건료 T2B 기반 구축사업 중 유일하게 호흡기질환 분야를 담당하는 국가 지정 호흡기 질환 제품 유효성평가 연구단으로서 참여해 국내외 제약사에 전문적인 호흡기질환 제품의 유효성평가 서비스 제공 및 기초연구성과의 제품화에 많은 기여를 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 2020년 보건복지부 지정 폐질환 의료기술상용화지원센터(질환유효성평가지원센터)에 호흡기 질환 분야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향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중증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기타 중증 호흡기질환의 치료제 및 신약후보물질의 효능 평가 등의 중책을 수행해 우리나라 호흡기질환 치료제의 임상시험 성공률 제고 및 상용화가속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김윤상 기자

## 신경 외상 데이터뱅크 시스템 이용 다기관 분석

### 원광대병원 엄기성 교수, 신경손상학회 라미 우수논문상

원광대학교병원 엄기성(신경외과) 교수가 제27차 대한신경손상학회 정기 학술대회에서 라미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엄기성 교수는 이번 학회에서 'Epidemiology and Outcomes of Traumatic Brain Injury in Elderly Population: A Multicenter Analysis Using Korean Neuro-Trauma Data Bank System 2010-2014(고령층의 외상성 뇌 손상 역학 및 결과: 한국 신경 외상 데이터뱅크 시스템을 이용한 다기관 분석)'을 통해 우수 논문상을 받았다.

대한신경손상학회는 한국형 외상 데

이터 뱅크 시스템(Korean Neuro-Trauma Data Bank System: Korean NTDBS)을 구축하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20개 기관에서 등록된 총 2617명의 두부외상(Traumatic brain injury: TBI) 환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이번 연구는 신경손상학회의 외상 데이터 뱅크 시스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노인 인구의 두부외상으로 인한 사망률과 사망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중점적으로 규명했다.

이 연구는 한국에서 노인 두부외상



환자에 대한 최초의 다기관 역학 연구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연구 결과는 추후 노인 두부외상 환자의 정확한 평가와 치료 계획 수립을 통한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논문은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Impact Factor: 1.376) 2019년 3월호에 게재됐다. /익산=장양원 기자

## 백년멘토의 성공 노하우 전수

### 백년가게 전복협, 효자동 '가스맨 효자점' 찾아 소상공 프로보노단 활동 일한 맞춤형 멘토링

백년가게 전복지역협의회(회장 김태정)는 15일 전주시 효자동에 위치한 수재문가스 맛집 '가스맨 효자점'을 찾아 '전복 소상공인 프로보노단' 활동의 일환으로 백년가게 맞춤형 멘토링을 실시했다.

이번 제2차 멘토링 대상으로 선정된 '가스맨 효자점'은 지난 5월 문을 연 수재문가스 프랜차이즈 음식점으로 최신 트렌드와 지역민맛에 맞는 신메뉴 개발을 위해 시행착오를 겪던 중 오랜기간 동종업계에서 업력을 유지해온 백년멘토의 실천노하우를 통해 고민을 해결하고자 프로보노단의 문을 두드렸다.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멘토링은 멘토로 참여한 백년가게 대표가 오랜기간 동안 점포를 운영하면서 경영현장에서 체득한 문제해결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체가 당면한 문제들을 함께 고민해보고 이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했으며, 대표메뉴 품평회를 통해 메뉴구성과 레시피에 대한 토론과 의견공유도 이뤄졌다.

한편, 전국 최초로 우리지역 백년가게와 전북중기청을 포함한 도내

유관기관들은 '전복 소상공인 프로보노단'을 결성하고, 지난 7월 8일 발대식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각 기관의 대표가 협약하겠다는 다짐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프로보노단에 참여하고 있는 전북경진원과 소진공에서 도 점포를 방문해 지원사업 및 자금 관련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음식점, 도소매업,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업종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강연과 같은 프로보노 활동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지방의 소상공인 프로보노 활동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전 지방청에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는 후문이다. 지난 7월 27일 이뤄진 1차 멘토링 활동은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유튜브를 통해 송출중이 있으며, 이번 멘토링 활동도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조해 영상 및 포스터 형식으로 중기부 SNS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 하림, 'jtbc 육자회담' 제작지원 기념 이벤트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jtbc 육자회담-닭고기 특집' 제작지원을 기념해 하림 자연실록 SNS에서 '소문내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17일 오후 6시 30분에 방영되는 jtbc '육자회담-닭고기 특집'은 고기를 사랑하는 셀럽들이 특별한 하림 스마트팩토리를 방문해 신선한 닭고기가 생산되는 공정을 확인하는 모습과 함께 출연진이 최고로 꼽는 닭요리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소문내기 이벤트' 참여 방법은 하림 자연실록 SNS 채널에 업로드된 방송 공지 콘텐츠를 자신의 SNS에 공유한 후, 해당 링크를 이벤트 게시글에 댓글로 남기면 된다. 총 10명을 추첨해 하림 양념육 세트와 제품발매 예정인 다. 당첨자 발표는 18일에 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림 자연실록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림 마케팅팀 관계자는 "이번 'jtbc 육자회담-닭고기 특집' 편을 통해 닭고기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소문내기 이벤트와 더불어 방송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익산=장양원 기자